

(757)

# 조선

주제 108  
(2019)

8







## 차 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5돐 중앙추모대회 엄숙히 거행 .....	2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	4
5월1일경기장에 펼쳐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관》 .....	10
북방의 쇠돌생산지 .....	16
소문난 공장 .....	18
대성산생물공장 .....	20

지하명승-송암동굴 .....	22
재능있는 피아노연주가들 .....	25
황진온천마을 .....	26
조선화와 함께 50여년 .....	28
실전형의 인재들로 자란다 .....	30
꽃향들을 .....	32
우승을 향해 노젓는 처녀들 .....	34
신도에 철새들이 늘어난다 .....	36
력사박물관으로 불리워지는 묘향산보현사 .....	38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7월 8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중앙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또한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으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시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역세계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선로동당의 자주의 혁명로선과 자력갱생의 전략을 틀어쥐고 전인민적인 총진군에서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함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글 최의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5돐 중앙추모대회가 7월 8일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추모대회에는 조선로동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평양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 근로자들, 혁명렬사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 연고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외국손님들이 참가하였다.

중앙추모대회 개최가 선언되자 전체 참가자들은 한없이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추모사를 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장 70성상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와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그 어느 위인전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헌신적이며 성스러운 투쟁사를 수놓아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의 험로역경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20세기 혁명운동사에 미증유의 커다란 자욱을 새기신 혁명의 대성인의 거룩한 한평생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은 사회주의조선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인류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앙추모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길이 받들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주혁명으로선을 틀어쥐고 존엄높은 사회주의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참가자들의 애국충정의 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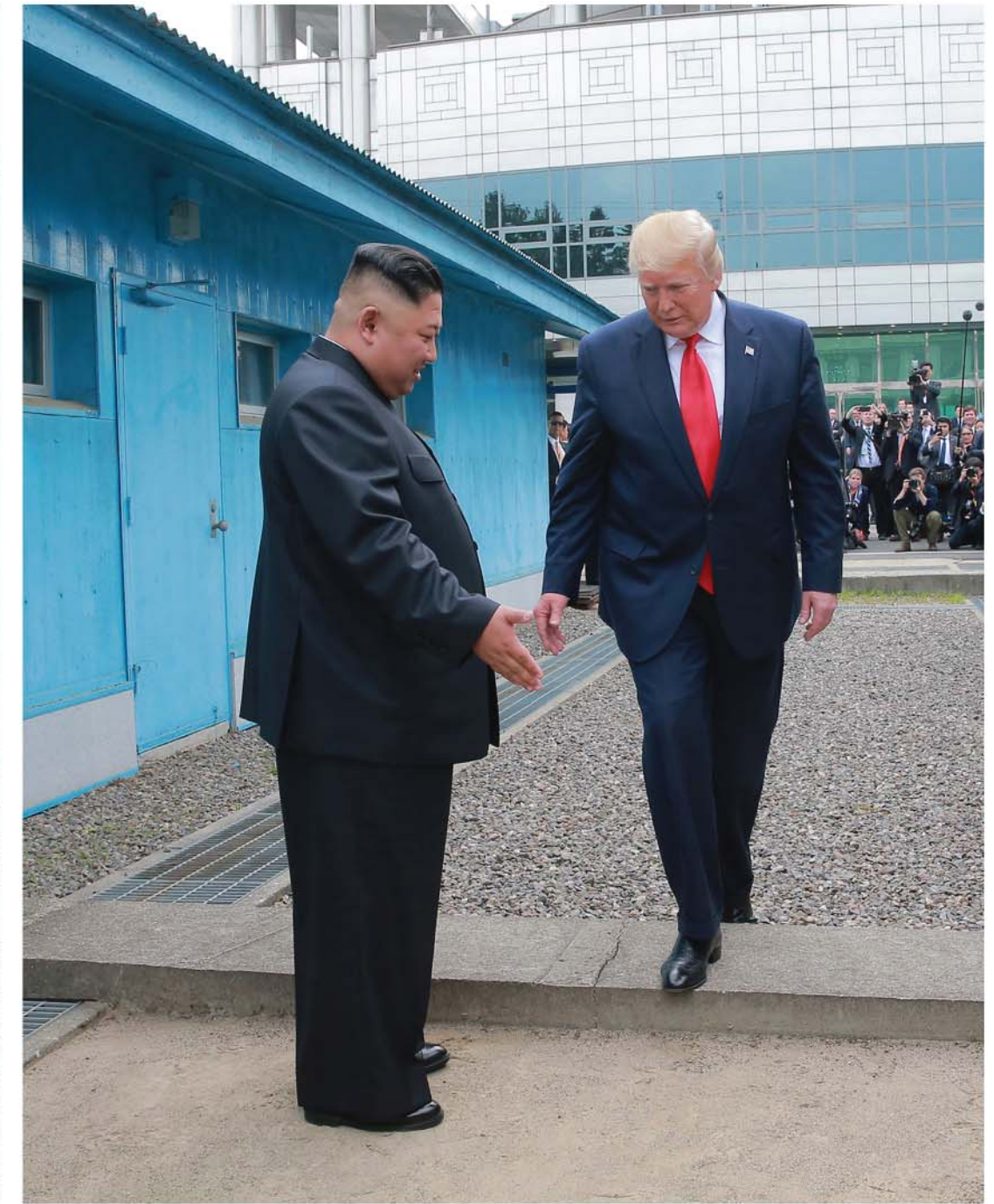
글 김 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5돐 중앙추모대회 엄숙히 거행**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6월 3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남조선을 방문하는 기회에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만나고싶다는 의사를 전해온데 대하여 수락하시고 판문점 남측지역에 나가시어 트럼프대통령과 전격적으로



상봉하시였다.

트럼프대통령의 판문점상봉요청의사가 공개된 순간부터 극적인 사변이 이루어진 순간까지의 하루 남짓한 시간동안 온 세계의 이목이 또다시 조선반도로 집중되면서 판문점에서의 조미수뇌상봉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온 행성을 뜨겁게 달구었다.

30일 오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판문각을 나서시어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판문점분리선앞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1953년의 정전협정체결이후 66년만에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 120여일만에 또다시 만난데 대하여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대통령을 안내하여 판문점 북측지역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트럼프대통령이 판문점 북측지역의 판문각앞에까지 오시여 또다시 손을 잡으심으로써 미국현직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공화국령토를 밟는 순간이 기록되었다.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는 환담을 나누시며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지역의 《자유의 집》으로 향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문재인대통령이 《자유의 집》앞에서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었다.

적대와 대결의 산물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남조선과 미국의 최고수뇌들이 분단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은 전세계를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으며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어 조미최고수뇌분들의 단독환담과 회담이 진행되었다.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미 두 나라사이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끝장내고 극적으로 전환해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과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걸림돌로 되는 서로의 우려사항과 관심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적인 이해와 공감함을 표시하시었다.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는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나가며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의 훌륭한 친분관계가 있었기에 단 하루만에 오늘과 같은 극적인 만남이 성사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자신과 트럼프대통령과의 훌륭한 관계는 남들이 예상 못하는 좋은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낼것이며 부닥치는 난관과 장애들을 극복하는 신비스러운 힘으로 작용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회담에는 조선측에서 외무상 리용호가, 상대측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이 참석하였다.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는 회담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대통령과 작별인사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트럼프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이 판문점 분리선에까지 나와 따뜻이 배려워드리었다.

조미대결과 갈등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세계적인 만남을 이룩한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과감한 대응단은 뿌리깊은 적대국가로 반목질시해온 두 나라사이에 전례없는 신뢰를 창조하였다.

글 김항미





## 5월 1일경기장에 펼쳐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

풍치수려한 룡라도의 5월 1일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가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해쑹는 백두산》, 《사회주의 우리 집》 등 여러개의 장과 경들로 구성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수수천년 간직해온 인민의 꿈과 리상

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조선의 줄기찬 전진로정을 거대한 예술적 화폭으로 훌륭하게 형상하고있다.

15만석능력의 드넓은 경기장의 공간속에서 출연자들이 펼치는 아름답고 우아한 불동과 기백있는 체조, 다채로운 기악과 노래, 공중교예

등은 천변만화하는 배경대, 화려한 무대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관람자들속에 커다란 환희와 격정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관록있는 여러 예술단체들의 예술인들과 시안의 수많은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한 작품은 내용과 형상의 수준이 매우 높은것으로 하여 훌륭

한 전통을 이어가고있는 조선의 문화예술의 면모를 그대로 느낄수 있게 하고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는 10월까지 계속된다.

사진 리광성, 안철룡, 홍광남, 글 문광봉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거대한 립체적공간속에 아름답고 우아한 룰동과 기백있는 체조, 천변만화하는 배경대, 공중교예 등으로 황홀경을 펼쳐놓았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고있다.



# 북 방 의 쇠 돌 생 산 기 지



조선의 북부내륙지대인 함경북도 무산군의 철산봉지구에 무산광산련합기업소가 자리잡고있다.

이 일대에서 쇠돌이 발견되어 리용되기 시작한것은 17세기 초엽이다. 지난 20세기 중엽부터 개발된 이곳에는 광체의 두께가 수백m인 철광상이 지표면까지 드러나있는데 그 매장량은 지금까지의 탐사자료에 의하더라도 수십억t에 달한다.

현재 련합기업소의 생산량이나 발전전망 그리고 기술장비수준은 전국적으로 손꼽힌다.

생산활동에서 기본은 로천채굴이다.

기업소에서는 매장량이 풍부한 채광구역들에 대형굴착기와 회전식 착정기들을 집중배치하여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캐낸 쇠돌의

수송능력을 높이는것과 함께 박토처리에 힘을 집중하면서 생산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또한 선광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능률적인 선광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철정광의 품위를 높이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채굴공정의 최량화를 실현하여 투자의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과 로천채굴장들에 통합생산지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경영활동을 현대화하고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활기있게 추진되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힘찬 노력에 의하여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박영조







# 소문난 공장

강원도 원산시 석현동에 자리잡고있는 송도원 종합식료공장은 전국에 널리 알려진 지방특산식료기지의 하나이다.

공장에는 콩, 강냉이, 보리, 도토리, 밤, 호두, 잣을 비롯한 도안에서 나는 원료들을 리용하는 특산물생산공정들이 20여개나 갖추어져있다.

공장의 생산조건과 환경은 제품의 질과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식생활문화를 향상 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새 제품개발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제품의 가치수를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소요되는 원료, 자재의 량과 질을 원만히 그리고 정확히 보장하는것과 함께 설비들의 점검보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모든 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걸고있다.

공장에서는 또한 경영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 원단위소비기준을 부단히 낮추고 경제효과성을 계속 높이고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사탕, 파자, 빵, 강정, 단묵, 음료, 국수류들을 비롯한 11종에 140여가지의 식료품들이 생산되고있다.

특히 공장에서 만드는 여러가지 기능성식품

들은 도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기름열매로 만드는 영양즙의 제조방법에는 국가특허증서가 수여되었다.

지금 각지의 상업망들에서는 《송도원》 상표를 단 공장의 특산품들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사진 리명일, 글 박병훈





# 대성산샘물공장



풍치수려한 평양의 대성산지구에 시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샘물공장이 일떠서 지난 5월에 조업하였다.

이 일대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맛이 상쾌하여 오래전부터 사람들속에 잘 알려졌다.

고구려(B. C. 277년-A. D. 668년)시기의 력사유적인 광법사의 가짜이에 위치하고있는

대성산샘물공장은 아름다운 주변환경과 어울려 마치 휴양소를 방불케 한다.

려과와 주입, 검사 등 모든 샘물생산공정들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장비되어있을뿐아니라 작업장들의 무균화, 무진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어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고있다. 경영관리와 생산관리, 공정

조종을 가장 합리적으로 할수 있도록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된 공장에는 생산에 필요한 용기생산공정도 그곁하게 갖추어져있다.

공장에서는 150개의 태양빛전지판과 여러대의 태양열물가열기를 설치하여 자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대성산샘물은 칼슘, 마그네슘, 철, 나트

리움, 탄산성분과 같이 건강장수에 유익한 광물질과 주요 이온들을 리상적으로 함유하고있어 소화가 잘 되게 하며 심장혈관계통과 소화기계통의 질병 그리고 관절염과 부인병 등의 치료에 효과가 크다고 한다.

하여 대성산샘물은 그 수요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사진 최명진, 글 문광봉





# 지하명승 - 송암동굴



평안남도 개천시 서남동과 안주시 송암동의 경계에 위치하고있는 총연장길이가 2 160m에 달하는 송암동굴은 조선의 대표적인 지하명승의 하나이다.

동굴에는 이 일대의 균열성고회암층이 오랜 세월 지하수의 용해, 용식작용을 받는 과정에 이루어진 돌순과 돌꽃, 돌고드름과 돌기둥 등이 천태만상의 아름다움을 펼쳐고있다.

보물동, 백화동, 설경동, 룡궁동 등 16개의 구역으로 나뉘여있는 동굴에는 맑은 지하수가 쉬임없이 떨어지는 6m높이의 단심폭포, 비단

이 쏟아져내리는듯한 돌폭포인 《비단폭포》, 높이가 4. 2m, 질량이 1. 9t이나 되는 《장검》 돌고드름을 비롯하여 70여개의 명소들이 있다.

특히 장수동에 있는 《장수못》과 그우에 편 《돌련꽃》은 다른 지하명승지들에서는 찾아 볼수 없는 절경이라고 할수 있다.

누구나 한번 보면 10년은 젊어진다는 지하명승-송암동굴, 이곳에서는 언제나 참관자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른다.

사진 안철룡, 글 김효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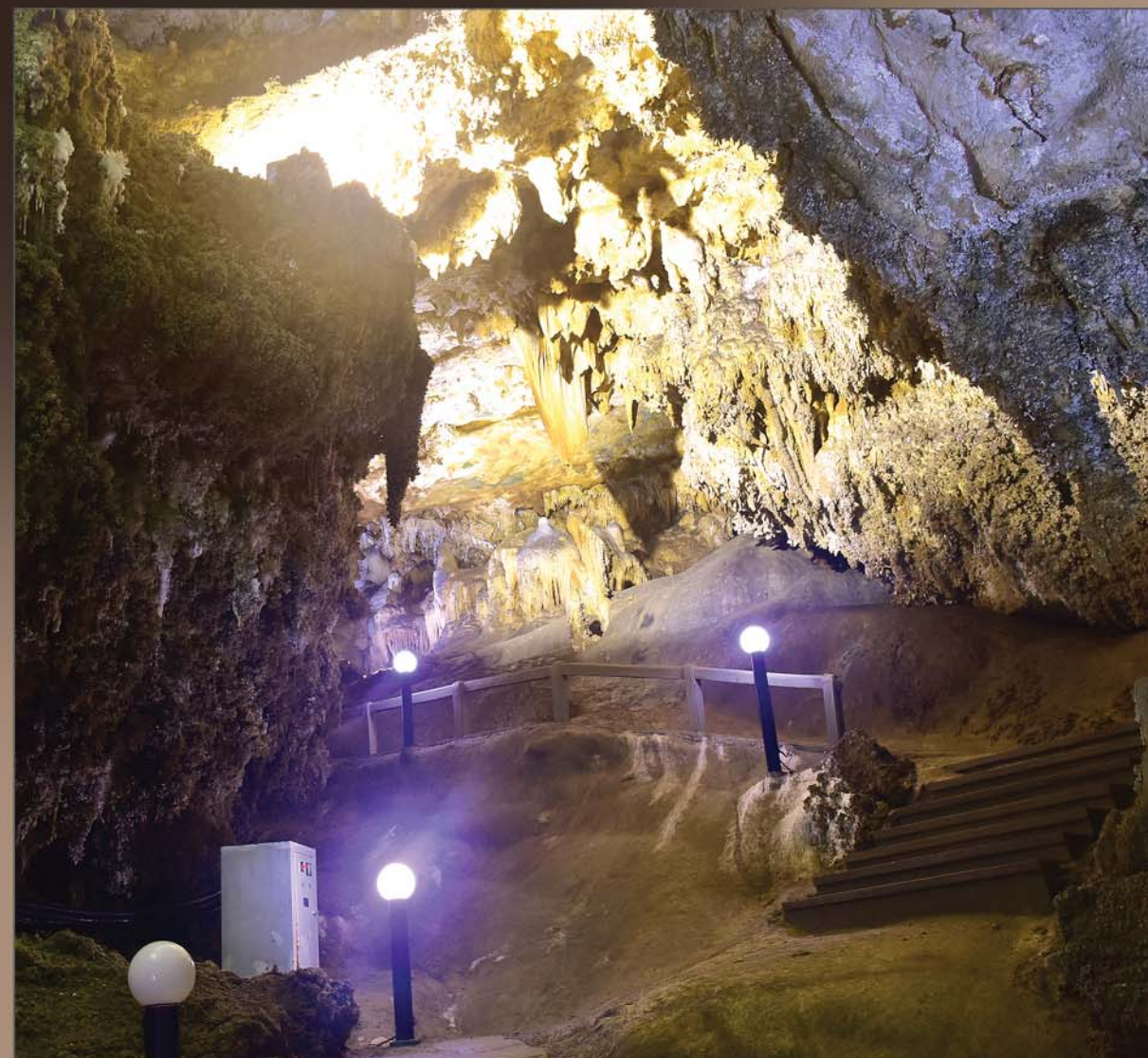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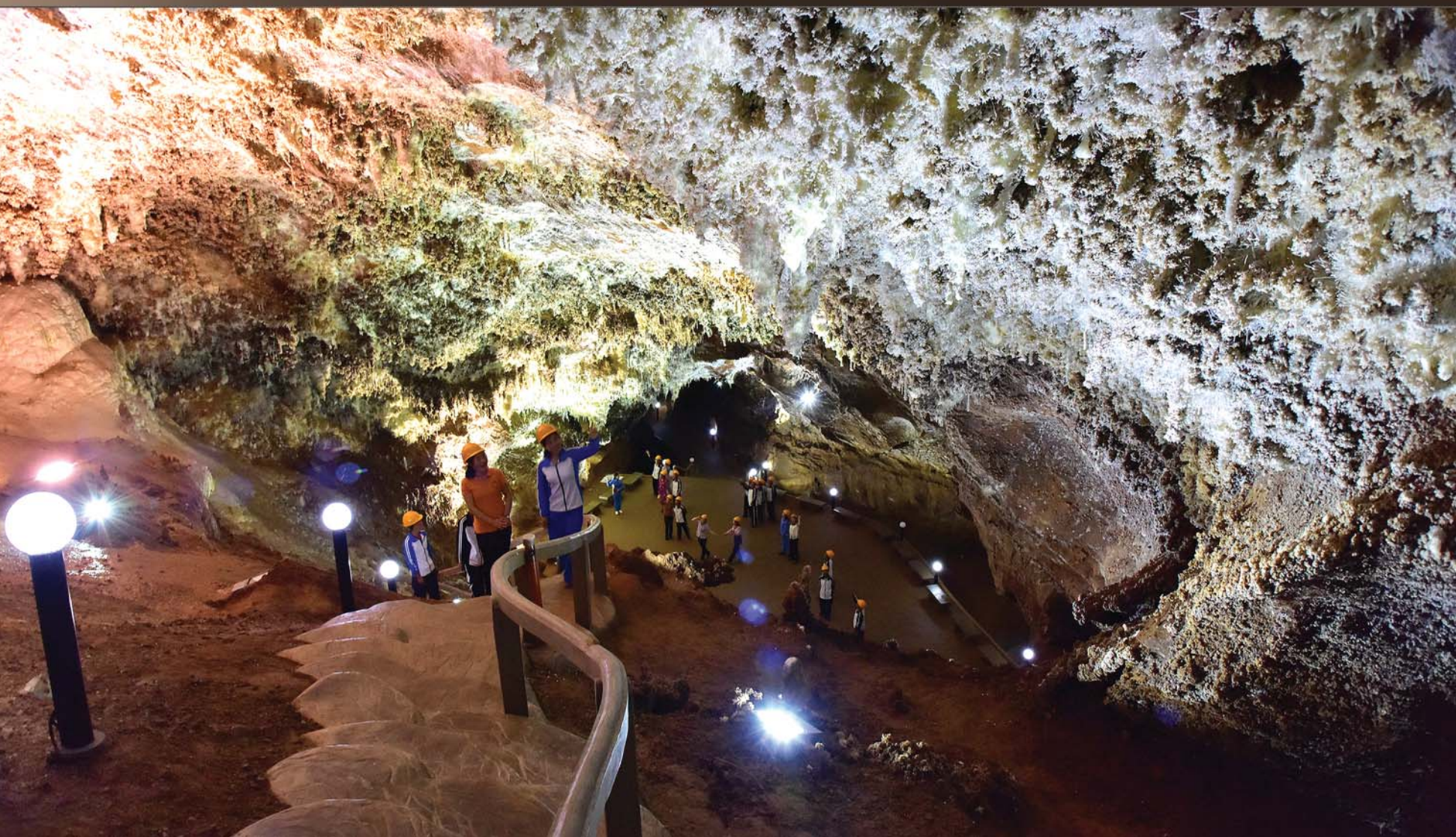
자랑터



《금강보초병》



《두더지부부》



《비둘기바위》





《게사니바위》



《진주보석》



《서리꽃》



설경동



《옥도끼 삼형제》



은하못의 칠색송어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 김지원  
학생이 받은 국제콩클  
수상자상장



지난 3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제3차 크라이  
네브명칭 모스크바국제피아노콩클에서 조선의  
피아노연주자들이 자기들의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이 콩클에는 지역별예선에서 참가자격을  
획득한 20여명의 전도유망한 청소년피아노  
연주자들이 참가하였다.

2부류(12~16살)콩클에 참가한 김지원은  
피아노독주곡 《대홍단삼천리》와 차이콥  
스끼의 발레조곡 《호두까는 인형》 등을 훌륭히  
연주하여 국제콩클수상자상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배연주는 3부류(17~22살)콩클에서  
특별연주상장을 받았다.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  
학생인 15살난 김지원은 조선의 명성높은  
조기음악교육기지인 경상유치원에서 피아노를  
배웠다.

오늘 학원적으로 가장 전망성있는 학생으로  
주목되고있는 그는 이번 콩클에서 높은 재치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배연주학생이 받은 특별  
연주상장

성과 섬세성으로 심사원들과 관중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의 3학년생인  
배연주도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잘 타서 보는  
사람마다 꼭 이름난 연주가 될것이라고 그의  
장래를 축복하곤 하였다.

이번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더 열심  
히 노력하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동무  
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사진 홍래웅, 글 문진유



# 황진온천마을



함경북도 명천군 황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자기 고장에 대한 이곳 사람들의 긍지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조선의 6대명산의 하나인 칠보산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은 기름진 전야와 함께 바다도 끼고있어 여러가지 농산물과 약초, 해산물이 많이 나는 풍요하고 아름다운 고장이다.

그러나 황진리가 유명하게 된 기본리유는 다른 광천지들과는 달리 온천과 약수가 다 있기때문이다.

수려하고 웅장한 외칠보의 한 산기슭에서 약수가, 그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둔 산중턱에서 온천이 솟아 나는데 지명이 붙어 황진약수, 황진온천이라고 불리 운다.

특히 국가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는 황진온천은

그 효능이 높은것으로 하여 오래전부터 알려졌다.

수소탄산이온, 염소이온, 나트륨이온 등 광물질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온천의 온도는 50℃정도로써 고혈압병, 류마치스성관절염, 신경통, 외상 및 수술 후유증, 소화기질병 등의 치료에 매우 좋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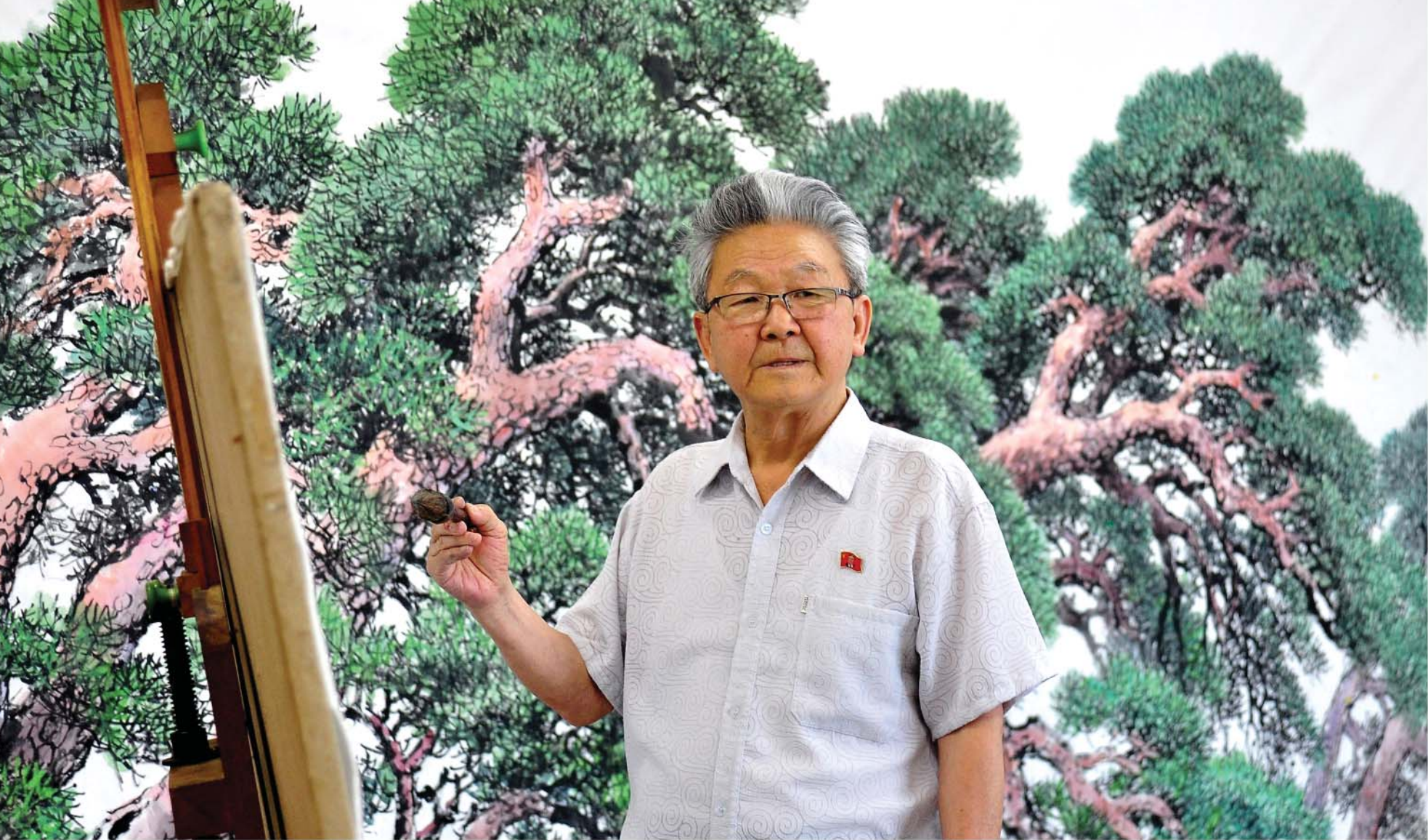
《아름다운 경치에 한껏 취하고 유명한 온천까지 리용하니 10년은 젊어진것 같다.》

《한번 오면 가고싶지 않고 가면 또 오고싶은 마을 이다.》

매집들에 온천치료를 마음껏 할수 있도록 시설과 조건이 갖추어져있는 황진리의 온천마을을 찾는 사람마다 터치는 찬사이다.

사진 공유일, 리진혁, 글 김충복





# 조선화와 함께 50여년

만수대창작사 미술가인 리창의 이름은 화단에 널리 알려져있다.

주체31(1942)년 8월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적부터 그림그리기를 좋아했으며 그 솜씨도 남달랐다.

리창이 조선화를 하게 된것은 아버지인 리용악(당시의 이름난 시인)의 권고에 따른것이였다.

평양미술대학(당시) 조선화학부에 입학하여서는 이름있는 화가였던 정종여에게서 배웠다.

최우등의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21살에 김철주사범대학 미술교원이 되였다.

그의 처녀작은 주체55(1966)년에 진행된 제9차 국가미술전람회에서 높이 평가된 조선화 《락동강할아버지》이다.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작품의 창작경위에 대해 리창은 이렇게 회고했다.

《조선인민군 군관의 체험담에서 창작적령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게 되였다. 처음엔 주인공

의 인물형상이 잘 되지 않아 술한 애를 먹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동강의 두루도에 나가 한 배사공로인을 찾아내서 주인공의 초상으로 담았을 때의 기쁨이란 정말 남달랐다.》

이때를 통해서 그는 생동한 체험을 떠난 기교나 기법만으로 결코 좋은 작품을 내놓을 수 없다는 창작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주체62(1973)년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에 망라된 리창은 보다 높은 정열을 발휘하며



조선화 《락동강할아버지》



조선화 《해》



조선화 《을밀대의 봄》



조선화 《금강산의 이른봄》



주체101(2012)년 중국의 베이징에서 리창의 개인미술전람회가 있었다.



2012. 09. 03

다양한 주제의 걸작들을 련이어 내놓기 시작하였다.

그는 주체65(1976)년에 공훈예술가, 주체80(1991)년에 인민예술가로 되였다. 그리고 주체95(2006)년에는 김일성상을 수여받았다.

리창의 작품들은 주체98(2009)년의 제12차 베이징국제예술박람회와 주체101(2012)년 베이징에서 진행된 개인미술전람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그림에 량심을 묻어야 한다고 후배들에게 늘

말하곤 하는 그이다.

71살에 예술학박사칭호를 받은 리창은 재능 있는 제자들도 수많이 키워냈다.

사진 리명국, 글 강수정



# 실천형의 인재들로 자란다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은 주체36(1947)년 9월 공업부분의 첫 기술 대학으로 창립되었다.

1960년대의 비날론공업의 창설과 1970년대의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조업을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한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 특출한 공적을 이룩한 대학은 지금까지 수만명의 능력있는 기술인재들을 키워냈다.

그 과정에 40여명의 영웅, 2중영웅과 160여명의 교수, 박사, 2 000여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이 배출되었다.

오늘 화학공업을 경제강국건설의 쌍기둥의 하나로 정한 조선로동당

과 국가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대학안의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열의는 더욱 고조되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대학에서는 여러개의 학과와 강좌들이 새로 나왔다.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진행되는 속에 근 300개 과목의 13 000여건의 교수안들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개작됨으로써 학생들이 새롭고 쓸모있는 지식을 더 빨리 체득하도록 하고있다.

실리있고 우월한 교육방법을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져 220여건의 새로운 교육방법들, 동화상자료들과 다매체

원집물을 리용한 15 600여건의 교수안들이 작성되어 교수사업에 구현되고있다.

그 과정에 대학생들속에서 최우등생대렬이 계속 늘어나고 전국적인 대학생영연, 전시회들에서 대학의 실력이 남김없이 펼쳐지고있다.

대학에서는 화학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을 개척하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사업에도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메타놀생산에 필요한 합성촉매를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다그쳐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100%국산화를 실현하고 촉매제조 기술까지 확립함으로써 공업화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사진 최원철, 글 리미에







# 꽃향풍류

고구려(B. C. 277년-A. D. 668년)시기 력사  
유적인 평양의 대동문가까이에 중구역 대동문  
유치원이 자리잡고있다.

주제46(1957)년에 설립된 유치원은 재간  
둥이들을 키워내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유치원의 원아들이 다 이 지구의 어린이들  
인것은 아니다.

40년전 국가적조치에 의해 이 유치원도 조기  
음악교육기지의 하나로 되었는데 그때부터  
다른 동파 구역의 어린이들이 수많이 망라되게  
되었던것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유치원의 교양원들중에는  
평양교원대학만이 아닌 예술부문의 대학졸업  
생들이 적지 않다.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소질과 취미에 따라 재능을 꽃피워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어린이들에 대한 선발은 이곳 교육자들의  
선차적인 관심사이다.

그들은 시안의 여러 락아소들에까지 다니면서  
음악적소질을 갖춘 어린이들을 찾아낸다.

그런 아이들이 원적인 심의과정을 거쳐 유치  
원에 다니면서 체질과 취미 등에 따라 가야  
금과 어은금을 비롯한 민족악기와 바이올린,  
피아노 그리고 성악을 배우게 된다.

천성적인 재능의 싹도 어떻게 키워주는가에  
따라 그 결실이 좌우된다것을 명심하고 새로  
운 교수방법들을 적극 도입해가고있는 이곳의  
교육자들도.

달마다 조직되는 원아들의 기량발표회나  
조기음악반창립을 기념하여 매해 5월에 진행  
되는 유치원어린이들의 공연은 어린이들뿐  
아니라 선생님들의 실력도 평가하는 계기로  
되고있다.



《우리 지은이가 대동문유치원을 다닌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피아노도 제법 잘 치고  
성격도 활달해지고 인사성도 밝아 동네에서  
모두 칭찬한답니다.》

서성구역에 사는 한 어머니가 유치원자랑,  
딸자랑을 모두 합쳐 하는 말이다.

유치원졸업시기에 이르면 전망성있는 어린  
이들은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  
음악학원 등에 추천된다.

오늘 관록있는 예술단체들에서 활약하는  
예술인들중에는 이 유치원의 졸업생들이 적지  
않다.

사진 홍광남, 글 감수정





고행복, 오수림선수들은 마자르에서 진행된 국제커누런맹 여자까노에컵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 우승을 향해 노젓는 처녀들

지난 5월 마자르에서는 세계 16개 나라와 지역의 선수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커누런맹 여자까노에컵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까노에 녀자 성인급 1인 200m경기에서 결승선에 제일먼저 들어선 조선의 고행복선수는 오수림선수와 함께 까노에 녀자 성인급 2인 500m, 200m경기들에서도 각각 2위와 3위를 하였다.

지금까지 7차에 걸쳐 진행된 이 경기대회에 처음 참가하여 금메달까지 쟁취한 이들의 경기성과는 사람들을 놀래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대회에서 조선선수들의 높은 실력을 보았다, 그들은 육체적준비가 대단히 좋을뿐아니라 기술적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에 있다고 평하였다.

고행복과 오수림이 커누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한것은 7년전이다. 주체104(2015)년에 진행된 아시아커누선수권대회의 까노에 녀자 성인급 1인 200m경기에서 3위를 하는것으로 국제커누제의 메달쟁탈전에 뛰여든 고행복은 아시아지역에서 진행된 경기들에서는 매번 순위권안에 들군 하였다.

지난해에는 중국 홍콩에서 있는 아시아컵커누경기대회의 까노에 녀자 성인급 1인 200m, 500m경기에서 각각 1등을 하였다.

그때 오수림도 까노에 녀자 성인급 1인 200m, 500m경기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하였다.

현재 고행복은 세계순위 9위에 있다. 금메달을 위한 그들의 줄기찬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사진 손희연, 글 김선경





# 신도에 철새들이 늘어난다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있다.

그들은 신도철새(습지)보호구를 찾아오는 철새들의 수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있다고 말하고있다.

사진 리충성, 글 박병훈

주체84(1995)년 평안북도 신도군의 비단섬, 황금평과 그 주위의 작은 섬들 그리고 주변의 강과 바다, 간석지 등을 포괄하는 2 500정도에 달하는 지역과 수역이 신도철새(습지)보호구로 설정되었다.

동아시아-오세안주철새이행경로에 위치한 이 일대에는 산림, 초원, 간석지, 늪, 저류지, 강, 바다, 섬, 주민지 등 조류들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과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있다.

많은 철새류들이 이곳을 주요한 서식지 및 도중체류지로 하고있는데 그중에는 세계적으로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하여 보호대상으로

되어있는 종들도 적지 않다.

생태환경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조선에서는 이 일대에서의 농경지개간과 수렵 등을 철저히 금지하고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파괴된 서식지들에 대한 복구활동을 적극 진행하는 것과 함께 수산자원을 늘여 풍부한 먹이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등도 따라세우고있다.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철새관찰을 위한 시설물들을 곳곳에 꾸러놓고 보호증식사업을 꾸준히하고 성실하게 진행하고



도요새무리



큰뒷부리도요



까치도요



재갈매기



큰고니



물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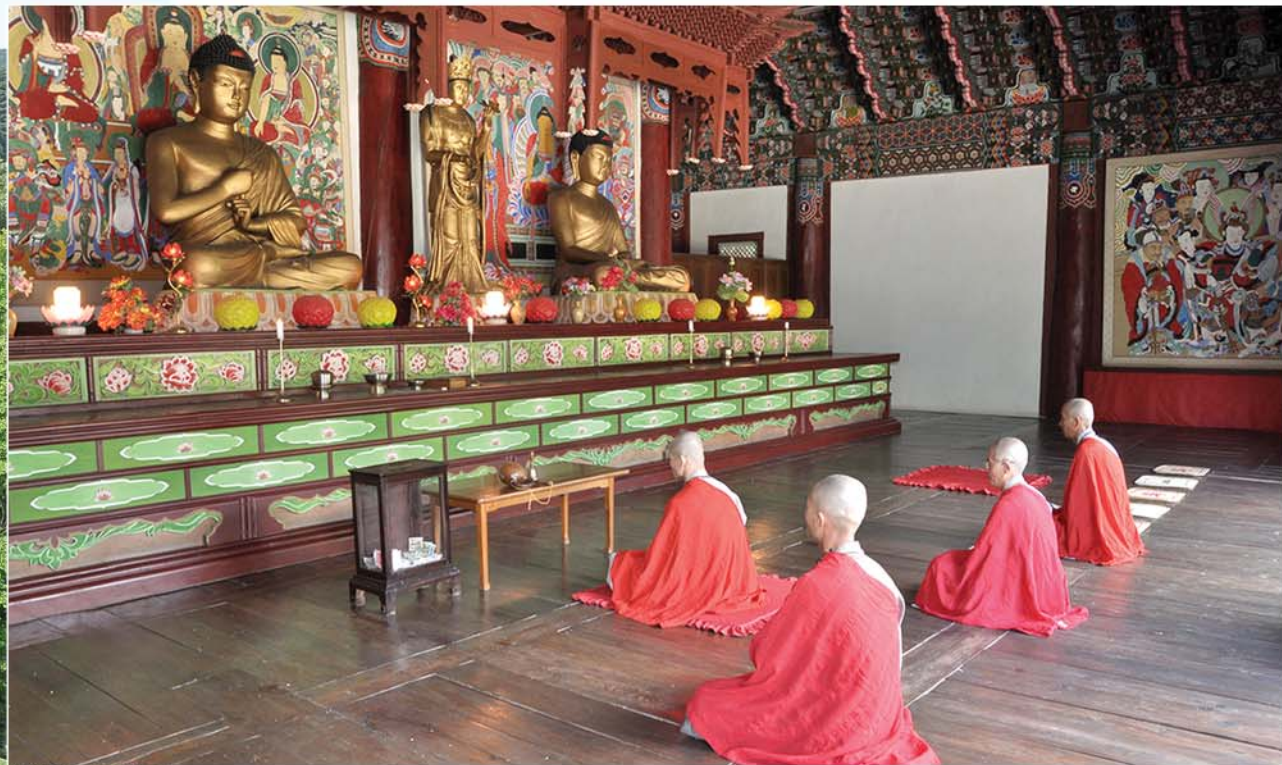
# 력사박물관으로 불리워지는 묘향산보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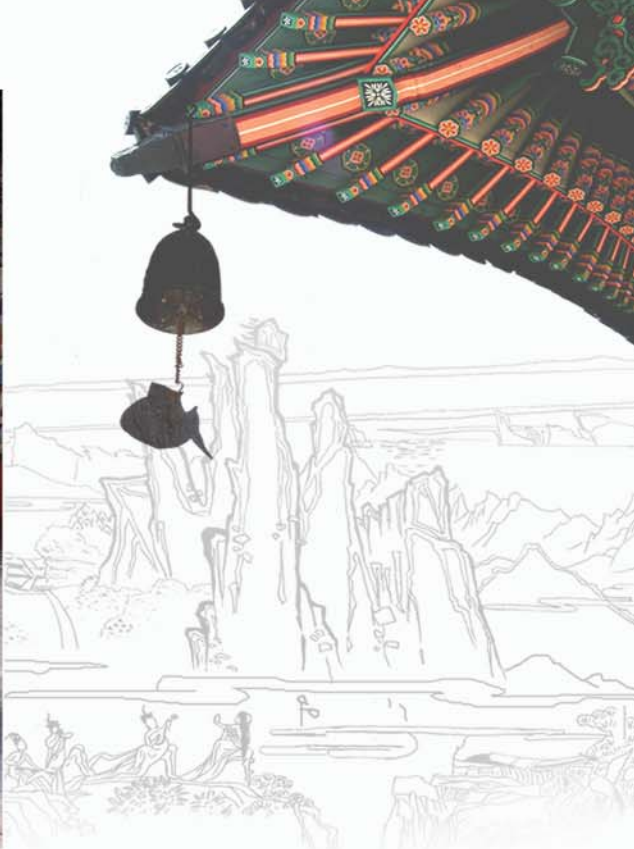




대웅전과 8각13층탑



만세루와 대웅전사이 뜨락에 있는 8각13층탑은 고려 말기의 탑이다. 보현사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은 잘 다듬은 화강석으로 정연하게 면을 맞추어 쌓은 밀단 위에 세운 화려한 합각집이다. 대웅전의 동쪽에는 관음전이 있는데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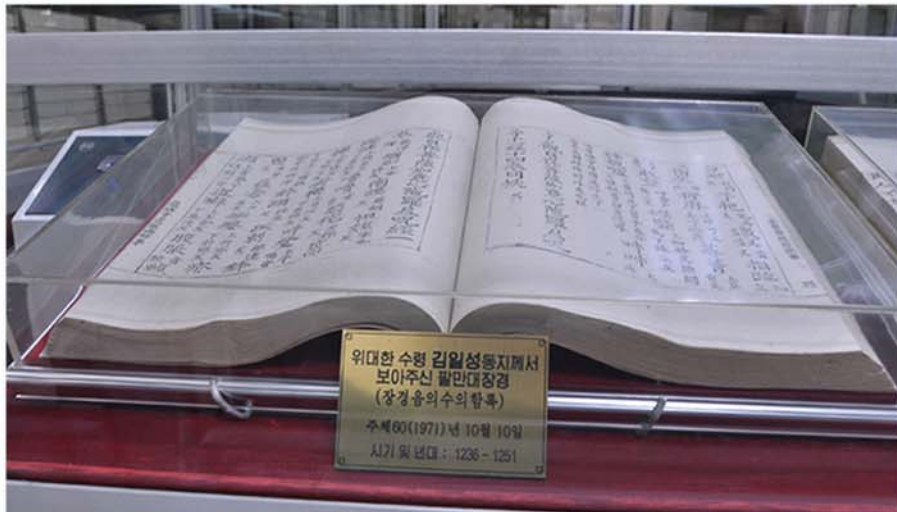


수층사는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 시기의 애국적인 중들이었던 서산대사와 사명당 등을 제사지내던 사당으로서 17세기 초에 세운것이다. 보현사는 조선의 민족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잘 보존관리되고 있다.

사진 공유일, 김성철, 글 박미에

조선의 6대명산의 하나인 묘향산기슭에 고려(918년-1392년)시기에 세워진 불교사찰의 하나인 보현사가 있다. 근 1 000년의 역사를 걸쳐면서 여러번 고쳐 세웠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은 1441년부터 1775년사이에 고쳐지은것이다. 여기에는 조계문, 해탈문, 천왕문, 만세루, 대웅전, 관음전, 령산전, 수층사, 4각9층탑,

8각13층탑, 《팔만대장경》보존고 등이 있다. 만세루의 앞마당에 세워져있는 4각9층탑은 화강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만든 고려초기의 돌탑이다. 지난 시기 불타버렸다가 주체68(1979)년에 고려시기의 건축형식으로 복원된 만세루는 비탈진 지세를 리용하여 앞은 2층으로, 뒤는 1층으로 지은 루각이다.



보현사의 《팔만대장경》보존고에는 1236년부터 1251년사이에 8만 1천여장의 목판활자를 만들어 인쇄출판한 불교경전이 보관되어있다.



1141년에 세운 보현사비의 높이는 2. 45m, 너비는 1. 12m, 두께는 0. 12m이다. 비의 앞면 윗부분에는 큰 글자로 《묘향산보현사지기》라는 비문의 제목을 새기고 그 아래부분과 뒤면에는 1 200여자의 작은 글자가 새겨져있다.



1469년에 조선종의 특징을 잘 살려 2만 2천근의 구리와 석을 녹여 만든 유점사종은 높이 2. 1m, 아구리둘레가 4. 1m이며 무게는 7. 2t이다.



고려초기의 탑조각을 대표하는 4각9층탑의 높이는 6m로서 처음 세운 년대는 탑몸 첫층 뒤면에 새긴 《보현사석탑기》에 의하면 1044년이다.



현재 묘향산력사박물관에 국보로 보존되어있는 다라니석당은 1027년에 평안북도 피현군 성동리 불정사에 세워졌던것이다. 이 석당의 높이는 5. 94m이다.



